

“다산 목민사상 배우자”... 강진, 공직자 연수 메카로

청자 도요지·영랑생가 등 답사·체험... 올해 2400명 방문

조선시대 유배지로 이름이 높았던 강진군이 최근 잇따르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추근 속에 청렴연수 메카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백비’ 등으로 유명한 청백리 고장인 장성군과 함께 최근 공직자들의 연수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29일 “공직자 연수프로그램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답사와 체험에 목적을 둔 연수로 변화하면서 다산초당으로 대표되는 강진의 기존 역사문화자산들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2박3일 일정의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의 ‘2013년 휴먼시티 공직자 한마

음 연수교육’ 1기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6월 말까지 모두 6기 420명이 강진군 일원을 찾을 예정이다.

강진군과 수원시는 실학과 수원화성의 다산 정약용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지역으로, 수원시는 다산의 청렴 아이콘에 매료돼 이번 연수를 강진으로 결정했다.

수원시 공직자 연수는 힐링 앤드 펠링(Healing & Feeling)을 주제로 강진의 사람과 역사,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오가는 오솔길에서 다산의 저서를 설명 듣는 것

을 시작으로 조별로 부여된 사의재와 백운동 등 다산관련 유적지에서 역사의 의미와 함께 다산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또 하백기박물관과 한골목, 청자도요지와 무위사, 와보랑계 박물관, 남미특사와 마량항, 영랑생가와 월남사지 등 강진 곳곳을 직접 누비며 생생한 현장체험도 하게 된다.

강진원 군수는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본래 직무이자 모든 선의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라며 “남도의 멋과 맛의 본 고장인 강진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두 힐링해 돌아가기를



2013년 휴먼시티 공직자 한마음 연수교육에 참가한 경기도 수원시 공직자들이 29일 강진군 다산수련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까지 강진군 다산수련원 공직자 청렴교육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700여 명이 찾았으며, 올해는 2400명의 공직자가



“담양을 본받자”

말레이시아 GIEF 회장 일행

대나무총회 유치위해 방문

말레이시아 GIEF(Glob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oundation, 세계적 혁신과 기업가정신 협회) 회장 일행이 제11차 세계대나무총회(WBC) 유치를 위해 이미 10차 대회를 유치한 담양을 지난 26일 찾았다.<사진> 29일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이사장 최형식)에 따르면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간 중 개최되는 제10차 세계대나무총회를 유치한 담양군을 배우기 위해 다도 가지 말레이시아 GIEF 회장 일행이 지난 26일과 27일 1박2일 일정으로 담양을 다녀갔다.

GIEF는 생태적 삶의 방식 죽

진을 주요 이념으로 녹색기술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안으로 대나무를 선택, 대나무 용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 협회는 오는 9월 ‘세계대나무의 날’을 개최하는 등 대나무의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8년에 개최되는 제11차 WBC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도 가지 회장 일행은 간담회를 통해 제10차 WBC 유치와 개최 준비 상황과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대나무 관련 산업체, 죽농원, 한국대나무박물관 등 담양의 대표적인 대나무 명소를 둘러보며 담양의 대나무 관광자원화 정책과 대나무 관련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모내기 준비 끝내고...

다소 많은 비가 지나간 29일 강진군 병영면 상고마을 들판에서 모내기 준비가 끝난 눈을 한 촌로가 둘러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 장애인이동차량 요금 할인 쿠폰 본인부담 50%→30%로

나주시는 29일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감에 따라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전 일반택시 이용요금에 대해 본인부담액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무거운 휠체어나 스쿠프까지도 상차가 가능한 휠체어 인치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2대를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하루 이용객이 20여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목욕탕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

다. 나주시 영산동에 위치한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1·2급 장애인인 전화(061-331-9700)로 하루 전에 예약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나주시 이상목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주시 2000여명의 장애인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남진 우드랜드서 한방아토피 체험캠프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28일부터 11월5일까지 한방아토피 체험캠프를 운영한다.

군내 15개 가운데 아토피·천식 안습학교로 지정된 6개교 380명이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아토피·천식 안습학교를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 그 수를 늘려 올해는 6개 학교 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아토피 및 천식 예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드랜드의 울창한 편백나무에서 뿔겨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접하게 된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전북

고창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설악산·제주도·신안다도해·광릉 숲이어 국내 5번째 등재

행정구역 전체 지정은 국내 최초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행정구역 전체가 등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창군은 29일 “지난 28일 오후 8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고창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주민소득 증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 신안 다도해(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포함), 광릉 숲에 이어 국내 5번째로 등재됐다. 랍사르습지 등 등록된 고창갯벌, 운곡습지 등 주요 보호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이 지역 주변의 산림지, 하천, 염습지, 사구 등을 완충지대로, 기타 농경지와 주민 거주지역을 전이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해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고인돌유적지와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벌, 등

립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이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또 생물권보전지역 로고(이하 BR로고)를 제작, 지역에서 생산되고 재배되는 농특산물에 부착해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강수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지역의 명품이 되면서 인지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고창이 ‘사람과 자연이 모두 조화롭게 행복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세계 속에 전라북도도 고창군의 명예를 드높이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지난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위원회에서 고창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가 확정되자 이강수 군수 등이 이사회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관광열차 타고 순창 농촌체험을”

郡, 용산역과 철도 이용 협약 체결

순창군이 코레일을 이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위해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용산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와 심치호 용산역장 등 양측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코레일 전북본부, 5월 대전본사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협약에 따라 순창군은 호남·전라선의 출발역인 용산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약내용은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순창군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용산역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순창의 관광자원과 청정 농특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됐다.

용산역은 순창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힐링투어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철도 관광상품 발굴과 홍보 등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유치에 공동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는 다음달 1일 ‘강천산 트레킹 관광열차’ 운영으로, 400여명의 관광객이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강천산과 순창 전통 재래시장을 즐기게 된다.

양 기관은 ‘강천산 트레킹 임시열차’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순창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철도관광객 유치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 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전주시, 공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전주시는 29일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신속한 민원해결 등 일선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 공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차량 블랙박스는 운전 중 과속, 신호위반 및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등을 예방하고 예산절감 및 안전운행을 도

모할 목적으로, 지난해 180대에 설치했다. 이달 말까지 추가로 109대에 설치할 경우 전주시 산하 모든 공용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다. 시는 산하 공용차량 310대에 대해 27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운행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조합공동사업법인 매출 1위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박해근)이 현재 전라북도 10개의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중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29일 “현재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매출액은 72억원으로, 금년도 매출목표액인 600억원의 12%에 달하며, 출범 두 달도 안 돼 높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내 5개 농협이 2억원씩을 출자해 설립한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인 을 상반기 딸기, 파프리카, 감자, 상추, 오이 등의 8개 품목을 공동선별해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에인 브랜드로 통합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부안 영농철 농가도우미 사업 호응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한 가운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바쁜 영농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9일 부안군에 따르면 사고 또는 질병 등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156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고로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들은 연간 10일까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는다. 영농도우미는 1일 5만2000원 이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남원시, 춘향선발대회 6명 홍보대사 위촉

제83회 춘향선발대회 수상자에 대한 남원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29일 오전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촉식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김성범 남원시의회위원장, 양희섭 KBS 전주방송총국장, 최화국 춘향문화선양회장, 2013년 미스춘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83회 춘향선발대회 춘

향진 최세이양과 함께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남원시는 매년 선발되는 미스 춘향을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춘향홍보대사는 국내외 관광, 축제,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참가해 남원과 춘향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개별토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순창군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순창읍 순화리 상업용지로, m당 107만원, 가장 낮은 곳은 동계면 어치리 임야로 m당 17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군은 29일 “2013년도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토지 12만3866필지의 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으며, 전체적인 지가 수준은 m당 전년대

비 평균 2.8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지가는 지난 2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인근 지가 등에 중점을 두고 산정돼 감정평가법인 검증, 주민 열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